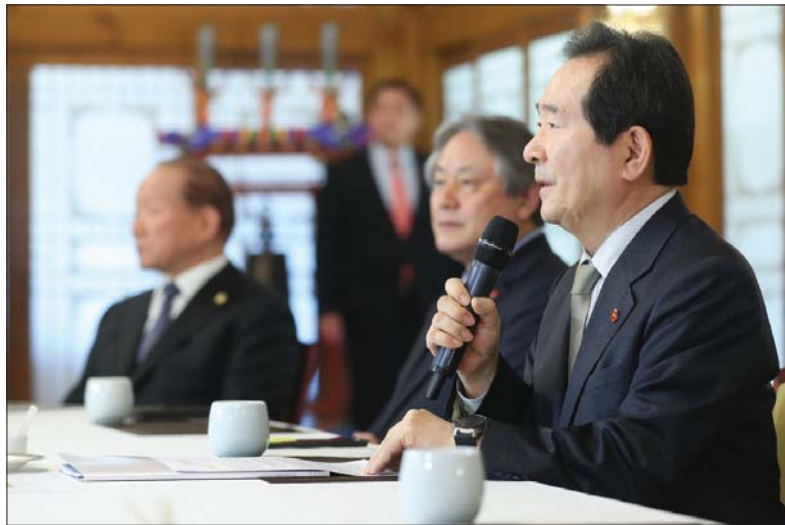


“종교계 비대면 활동 지원책 마련”

정 총리,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천주교, 비대면 미사 연장
불교계도 석가탄신일 행사 연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책 마련 등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종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종교계 결단이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과정 중 어려움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는 오는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미사 중단 일정을 무기한 연장했다. 불교계도 오는 30일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종교계 협력에 맞춰 종교문화 활동 지원 예산 조기 집행,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 방역물품 확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한다며, 앞으로 더욱 책임의식을 갖고 하루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교계 협력과 지혜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총리의 재난 현장 상주와 감염병 정보 투명한 공개가 큰 힘이 됐으며,

재난 대응에 종교계가 앞장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종교계 간 소통 매뉴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해의 종교계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 입장이라며, 한국 선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제도에 자부심을 더욱 느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의

식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진기 성균관장 직무대행, 송범두 천도교 교령, 박재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뉴시스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 수상작 발표

도교육청, 창작시 등 총 9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6주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전북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모 창작시와 창작곡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대상 1편, 우수상 2편 등 총 9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은 추모곡은 군산소룡초병설유치원 김선미교사의 '꿈이라면', 추모시 학생분야는 군산여고 김해원 학생의 '제주 산지등대'가, 추모시 일반인 분야는 군산속산초병설유치원 강양오 교사의 '4월, 그날'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추모곡은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추모시 학생분야는 대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일반분야는 대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은 각급 학교 계기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추념 행사 시 우수작으로 소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

다"면서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 도교육청 5층 손빛맞이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그림책으로 문화 위상 드높여줘”

박양우 장관, '구름빵' 백희나에 축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그림책 작가로는 처음으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 작가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3일 문체부가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창작 기법으로 경이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준 백희나 작가의 작가적 성취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을 계기로 한국 그림책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속에 한국의 출판물, 나아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여준 쾌거를 일구어낸 백 작가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세계적인 캐릭터 '말괄량이 삤삤'을 탄생시킨 스웨덴 여성 동화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을 기



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2002년 제정한 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문학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시상한다.

백 작가는 인형과 소품, 세트를 직접 만들고 조명까지 곁들여 하나의 무대를 연출한 뒤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첫 작품인 '구름빵'을 비롯해 지금까지 '날 사베트', '정수탕 선녀님', '알사탕', '나는 개다' 등 그림책 13권을 출판했다. /뉴시스

문화가치연구협회, 순창군에 성금 기탁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이사장 김명곤·사진)는 최근 코로나19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특히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고자 순창군에 5백만원을 기탁했다.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는 지난 2010년 한국의 문화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문화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현재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워크숍, 경영지도, 설문조사, 공연기획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부터 한국의 문화가치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가치대상' 시상식도 개최하고 있다.

김명곤 이사장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이겨나가길 기원한다"며 기탁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광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장수지역 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광승기도 문체관광국장, 장수 문화유산 현장 방문

전북도 광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장수지역 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빙기 안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점검을 펼쳤다.

이날 점검은 전라북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가야역사관 건립부지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백화산고분군, 침림산성, 전북최초 가야전 문 홍보관인 장수 가야홍보관 등에서 문화재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안전대책 등을 수립했다.

특히 장수군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야 유적 발굴조사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조사원들에 안전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협을 것을 당부했다.

광승기 국장은 "우리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니 코로나 19 극복은 시간문제"라며 "전북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빛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